

2021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 추가 선정 발표평가 종합심사평

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.

날로 위상이 커지는 K-웹툰을 브라질, 미국, 일본, 프랑스에 확산하기 위해 유통 플랫폼 제작, 팝업스토어, K-POP과의 협력 등 다양한 접근방식과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습니다.

K-웹툰 플랫폼으로 브라질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평가위원들은 현지와의 협력이 제대로 되길 희망하여, 플랫폼의 활발한 운영을 기대하였습니다.

또 다른 신청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K-웹툰의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, 작가를 초청하여 열리는 이벤트의 글로벌 생중계 프로젝트를 제출하였습니다. 평가위원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였고, 진행 인력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
또 다른 업체는 프랑스에 신작을 출간하며 K-POP과 연계한 콘서트 개최를 기획하였습니다. 평가위원들은 K-POP에서 K-웹툰으로 자연스럽게 홍보와 매출이 연결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으며, 해당 기업은 기존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활용한 프로모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.